

중부권

당국지시 따랐던 농가 보상 못받고 배짱농사 지은 농가만 보상금 지급

영산강 둔치 국유지 영농 보상 형평성 논란

4대강 사업지역인 나주 영산강 둔치 국유지의 영농 보상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지침을 따랐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농을 중단한 반면 나머지 700여 세대는 불응하며 영농을 계속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보상규정을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 현재 경작허가권 소유자에 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영산강 하천부지에서 계속 농사를 고집한 주민 700여 세대는 모두 83억원의 영농보상금을 받았다.

크게 반발했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국토해양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영농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들 기관은 지난 해 말 나주시에 수용불가를 회신한바 있다. "정부의 경작중단 요구에 수십 년간 경작해왔던 농사를 지난해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영산강살리기 사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 노안면 화산리 59가구 주민 200여 명도 영산강 승촌보 인근에 36만8천㎡ 규모의 생태호수공원이 들어서면서 생계 터전을 잃게 됐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영산강 사업을 한다면서 왜 사유지까지 수용해 농사를 못 짓게 해놓고 영농보상은 m당 2천260원에 불과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영농보상과 관련된 농가들의 억울한 입장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현재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변칙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화순군 공무원 162명 청년 취업 1대1 알선

화순군이 취업창구 개설 등 관내 청·장년 취업알선에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담당급 이상 162명 모두가 광주·전남 기업체에 관내 청년실업자 1명씩을 취업 알선하는 책임담당제를 시행한다. 화순군은 군청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애용직종을 출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실업자 1:1 취업알선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2일부터 화순읍사무소와 화순읍 광덕리 문화광장 등 2개소에 청·장년 취



취업알선 행사는 화순군이 주관하고, 광주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전라남도 취업정보센터가 후원하고 있다. 일자리를 원하는 화순군민은 오는 26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정순기자 unsu@

“진입로·농배수로 정비해 주오”

광산구 자연마을 “비좁고 노면 손상 주민·차량 통행 불편”

광산구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하다는 보도(본보 24일자 10면)가 있다. 광안마을, 회룡마을, 신봉정마을, 외동마을 주민들도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배수로 정비 등을 호소하고 있다. 30여세대(80여 명)가 살고 있는 광안마을의 경우 마을 진입로의 노면이 손상되고 비좁아서 주민행래와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300여m 길이의 마을진입로가 폭 3~4m로 비좁고 패여 있는 등 손상이 심해 폭 8m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송영근(60)씨는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가 시급하고 농기계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도로확장도 해야 한다”며 “해마다 마을 숙원사업을 시와 구에 건의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다”고 호소했다.

광산구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숙원사업은 대부분 도로 및 하수도의 보수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광산구 회룡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1천100여m가 지반이 침하되고 노면이 심하게 파손돼 사고위험이 많아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정마을과 외동마을 주민들도 농배수로 정비를 바라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영산강 황포돛배 나루터 옮겨 운항

영산강에서 운항중인 황포돛배 나루터가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변경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강바닥 준설작업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현재의 운항 구간인 공산면 백사리 다야들 나루터를 하루방향을 500m 옮겨 운항하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황포돛배 배깃체험은 지난해 2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등 남도를 대표하는 체험관광의 필수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주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현재의 황포돛배는 근거리 중심으로 운항하고 고대(古代) 나주선을 100t규모로 복원해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운항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황포돛배를 타고 나리는 나루터만 하루로 약간 옮길 뿐 전체적인 운항구간이나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관내 직파재배 단지 대표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직파재배(무논갈무리) 연선회를 가졌다. 직파재배는 물이 있는 논에 직접 종자를 균일하게 파종해 잡초발생과 벼 쓰러짐이 적고 육묘와 모내기 과정이 생략돼 노동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장흥군 제공>

내달 9일~11일 영산포 흥어축제 영산강 체육공원 일대서

'제6회 영산포 흥어축제'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대 유채꽃단지에서 개최된다. '알짜한 흥어와 추억과 낭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속성흥어의 대명사인 '영산포 흥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흥어 OX퀴즈, 흥어장사 선발대회, 흥어 예쁘게 썰기 등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흥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흥어경매, 흥어무림 한마당 등 관광객들이 흥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벤트가 행사 기간 내내 열린다.

개막 식전행사로 영산강변 노란 유채꽃밭 길을 걷는 시민 건강걷기대회가 마련된다. 영산강 둔치를 따라 펼쳐진 50여만㎡에 달하는 유채 꽃단지는 나주 축산보 설치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대부분 물에 잠기게 돼 내년부터 볼 수 없게 된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정수장 배수지 청소 화순군 내달 9일까지

화순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11개 정수장 배수지를 대상으로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화순군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소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 급수가 중단될 예정이다. 단수지역과 날짜는 다음과 같다. ▲한천면(29일) ▲동면(31~4월 1일) ▲화순읍(4월 1일) ▲능주면(4월 1~2일) ▲도안면(4월 5일) ▲북면(4월 6일) ▲남면(4월 7일) ▲동북면(4월 8일)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전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수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의(061-379-3865) /중부취재본부=정순기자 unsu@

영산호 주변에 전통 한옥 숙박단지 1만8천600㎡ 부지에 연립·독립형 21동 건립

영산호 주변에 대규모 전통 한옥 숙박단지(조망도)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 주변에 들어서는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공사를 다음달 초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규모 한옥 숙박 전용단지로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영산호 주변 1만8천6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숙박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돼 다음달 초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단지의 신축이 일반 건축보다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내년 9월까지



는 모든 절차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영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지는 단체 숙박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립형 숙박동과 별채형식의 독립형 숙박동이 신축된다. 단지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연립형 숙박동은 14동 규모이며 단지 후방에 자리 잡은 독립형 숙박동은 7동으로 단층형(1층)과 복층형(2층)으로 지어진다. /중부취재본부=이상욱기자 ish@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트폰. 1588-3533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 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망만 컸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관심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불끈 일어나서 잠시간 지속되니 끝인줄 생각인지 청춘으로 돌아간 듯 부활함을 느낀다. (발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성인)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파부 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 같은 질러면이 처음 보는 것이라 주사나 약도 아니라고 반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위치: 화순읍 전대평길만산부근. 대지: 250평, 건물: 73평.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주차 고급 자동차 4대 가능. 최신 CCTV 8대 설치. 방 4개/욕실 3개. 난방시설: 심아전기. 조경: 잔디, 소나무. 건축 준공: 2009년 10월 30일.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실내 인테리어: 휴광도 벽돌, 휴광도 바닥. 2층 방바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목 시공). 011-634-4114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4면 광로변).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중합형/심기/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위치: 전남 강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마당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랑농공단지앞 유일주유소. 매매가: 1억 7천만원. 참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옆). 대지 약 950㎡. 매매가: 22억(조정가능). 대지,창고 분할 매매가능. 물류,창고부지로 최적지.

한국부동산컨설팅. 수원지구 1만평 매매 3.3㎡당 1백만원 분할가능. 도로점 <급매> 시세 3.3㎡당 2백만원. 서구지역 골프장부지 1만평 3.3㎡당 1백만원, 분할가능, 도로점, 각지. 중흥동 대로점, 광주역앞 130평 매매가 상담 후 결정. 동림동 대로점, 현창고 사용 500평 3.3㎡당 300만원 <급매>. 양산동 원림부지, 일신아파트앞 125평 분할가능. 60평, 65평 3.3㎡당 150만원. ※ 구함: 토지 상가 공장부지 원룸. 한국부동산 컨설팅 <김호현>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